

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원발병소로만 치료한 모든 환자에서 국소제어가 되었다. 원발병소만을 치료한 군의 환자분포를 살펴본 바 대부분은 병기 I (5예), 종양의 크기가 5cm미만(5예), 화학요법 후 완전관해를 보인 경우(4예)를 보였다.

결론: 원발병소의 크기는 생존율 및 국소제어율에 의미있는 예후인자였고, 병기 및 화학요법의 완전 관해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생존율 및 국소제어율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을 보였다. 방사선 조사야는 병기 I 이거나 종양의 크기가 적을 때 또는 화학요법 후 완전관해를 보인 경우는 원발병소부위만 치료 하더라도 국소제어율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두경부 편평상피암에서의 Telomerase Activity에 관한 연구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백정환 · 김명순 · 손영익 · 추광철

배경: 사람의 정상적인 체세포의 염색체 말단은 반복된 DNA 염기 서열(TTAGGG)에 의한 특이한 구조를 가진 telomere가 존재하며 이의 합성에는 telomerase라는 효소가 관여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체세포는 노화할수록 telomere의 길이는 짧아지며 Telomerase activity가 관찰되지 않으나 암세포 등의 immortalized cell에서는 telomerase activity가 관찰되어 telomere의 소실과 세포의 노화, telomerase의 발현과 암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목적: 저자들은 telomerase activity가 두경부 편평상피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두경부 편평상피암의 진단에 유용한 표지자로서 임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최근에 개발된 PCR을 기초로 한 TR-AP(telomeric repeat amplification protocol) assay를 이용하여 7례의 두경부 편평상피암 세포주, 원발성 편평상피암 환자에서 채취한 30례의 암조직과 원발종양에 인접하지 않은 정상 점막조직 12례에서의 telomerase ac-

tivity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양성(강, 약)과 음성으로 분류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Hela 세포주를 음성대조군으로는 섬유모세포를 사용하였다.

결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Hela 세포주와 전례의 두경부 편평상피암 세포주는 강양성으로 관찰되었다. 원발성 두경부암 30례중 24례(80%)에서 약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6례(20%)에서 약양성으로 관찰되었다. 정상 점막조직 12례중 9례(75%)에서 약양성으로 관찰되었으며 3(25%)례에서는 음성을 보였다. 음성대조군인 섬유모세포에서는 telomerase activity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두경부 편평상피암과 telomerase activity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아마도 암발생의 다단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며, 암세포의 진단을 위한 강력한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되나 정상 점막등에서도 약양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다른 기존의 진단법과의 병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3

재발된 두경부 종양에서의 Mould Brachytherapy의 임상적용

삼성의료원 치료방사선과, 치과보철과*, 이비인후과**
안용찬 · 최동락 · 김대용 · 허승재 · 홍순호*
백정환** · 추광철**

목적: 과거에 두경부 종양에 대한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후 다시 두경부의 골을 침범하는 재발이 된 환자들에 대한 재치료의 방법으로 Mould Brachytherapy를 적용하여 그 임상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진행된 상악동암으로 근치적 상악동 및 안와 절제술과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orbital roof와 frontal sinus에서 재발한 61세 여자 환자와 진행된 경구개암으로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된 80세 남자 환자에 대하여 각각 Mould Brachytherapy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환자에서 치과용 인상재(Poly vinyl-